

제품 완충재에서 무대 소품까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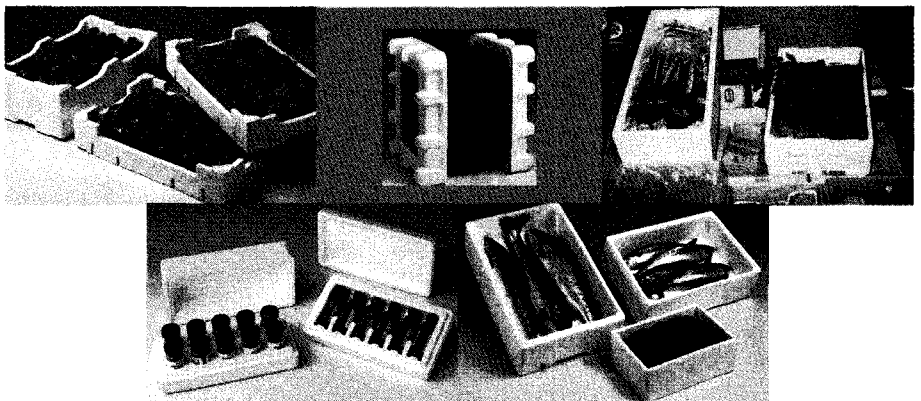
스티로폼이란?

스티로폼은 발포스티렌(EPS, Expanded Poly-Styrene), 스티로폼(Styrofoam)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자원 절약형 소재입니다.

스티로폼 제품의 종류에는 크게 가전제품의 포장재, 농수산물 상자, 양식용 부자, 주택 단열재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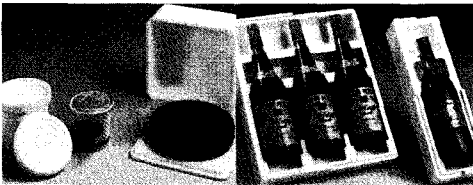
포장 용기



스티로폼은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가 탁월하고 견고하며, 무게가 가벼워 가전제품의 완충재, 의약품 용기, 일반 물품 용기, 어패류, 농산물 포장용기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소규모 포장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어 스티로폼 포장용기의 이용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사용해 채소나 과일을 보관할 경우 내용물속의 비타민C 손실을 막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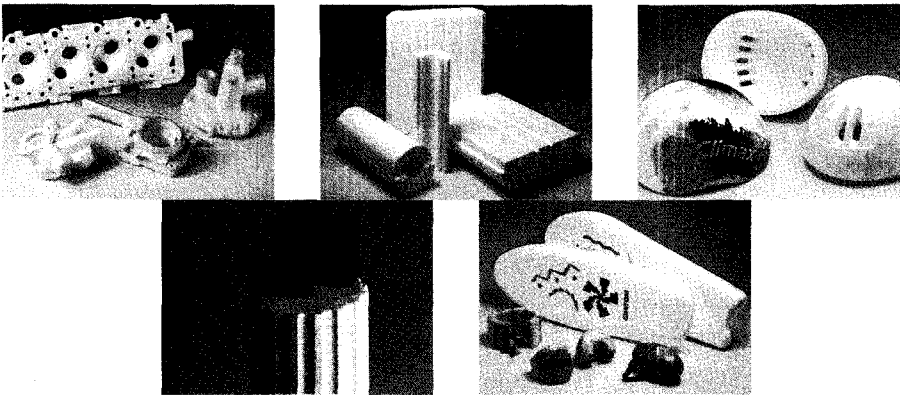
스티로폼은 탁월한 충격 흡수력과 방수성, 단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제품 완충재나 포장 용기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형과 착색이 용이해 방송용 소품, 기계의 디스플레이 소품, 또는 실물의 이미테이션으로도 용도가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티로폼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뛰어난 단열성을 가진 스티로폼 포장용기가 아이스크림 포장용기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탁월한 제품 보호력으로 깨지기 쉬운 주류의 포장용기로 사용되기도 함.

성형이 용이해 복잡한 기계 부품을 보호하는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건축자재

스티로폼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습도에 강해 단열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성형이 쉽고, 내구성이 강해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밖의 활용

스티로폼은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무게가 가벼우며, 탁월한 방수성으로 인해 각종 제품의 보조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 윈드서핑 보트의 안감, 해상 구조 용품 등이 있다.

여기에 자유로운 성형과 자유로운 착색으로 인해 실제 물건을 거의 완벽하게 이미테이션할 수 있어 패션쇼나 백화점의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